

## 한국 양육자 발화의 질적 속성이 유아의 주의 지속과 어휘 습득에서 가지는 역할 탐색\*

Received: January 14, 2023  
Revised: February 15, 2023  
Accepted: February 28, 2023

김윤성<sup>1</sup>, 최영은<sup>2</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sup>1</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sup>2</sup>

교신저자: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 Exploring the effect of Korean caregiver speech quality on sustaining the child's attention and vocabulary acquisition

E-MAIL:  
yochoi@cau.ac.kr

Yoonsung Kim<sup>1</sup>, Youngon Choi<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sup>2</sup>

\* 이 논문은 2021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해당 논문은 2022년 한국발달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영상분석에 도움을 준 문정희 학생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 ABSTRACT

양육자가 발달 초기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언어 입력 자극은 양적, 질적으로 언어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양육자 발화가 학습자의 주의를 지속시켜 유아의 학습을 돕는 기제일 것이라 제안되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양육자 입력 자극의 질적 속성이 유아의 주의를 끌어 언어습득을 돕는지에 대해 규명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 관계를 살피고자 만 15~20개월 된 자녀-양육자 24쌍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 양육자의 발화를 관찰하였다. 양육자 발화를, 지시하는 대상이 적절한 (대)명사로 언급되었는지, 어떤 문장구조를 띄는지, 의사소통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세 범주의 질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주의가 3초 이상 지속되는 구간에서 자주 관찰되는 질적 특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시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 언급 여부 및 의사소통 의도에 따른 질적 특성의 역할이 눈에 띄었던 미국의 자료와 달리,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에는 양육자 발화의 구조적 특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표현 중에서 평서문 사용은 지속 주의를 유도하였고, 54개월의 긍정적인 어휘습득을 예측하였다. 반면, 조각문은 주의를 끌고 유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아동의 어휘습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주의 지속이 발화의 특성과 연결될 때 이후 습득을 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한국어 특성상 (대)명사가 영어보다 자주 생략되더라도 지시 대상의 언급을 생략하지 않은 문장 표현이 영어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 양육자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언어에서 생략을 덜 할 가능성도 관찰되었다.

주요어 : 양육자, 입력 언어, 발화 질적 속성, 어휘 습득, 지속 주의



© Copyright 2023.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언어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로 생애 초기에 급격히 발달하며 초기에 습득한 어휘의 크기는 이후의 어휘량(장유경, 성지현, 2011), 읽기 능력(Duff et al., 2015; Law & Edwards, 2015)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인 발달을 예측한다(Agostin & Bain, 1997; Dapretto & Bjork, 2000; Lee, 2011). 반면에 지연된 초기 언어발달은 이후 다양한 행동 및 정서적 어려움의 예측 지표가 되기도 한다(Clegg et al., 2015; Tomblin et al., 2000; Westrupp et al., 2020).

나이가 같더라도 어휘습득량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에는 타고난 인지적, 지각적 능력에서의 개인차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노출되는 언어적 입력 자극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정지은, 최영은, 2019; Schwab & Lew-Williams, 2016). 예컨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부모는 낮은 가정보다 자녀에게 풍부한 어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적, 질적으로 풍부한 언어 환경에 노출된 아동일수록 실제 어휘습득량도 많다고 보고되었다(Hoff, 2003; Huttenlocher et al., 2010; Rowe et al., 2009; Weisleder & Fernald, 2013). 과거 미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비교분석 보고를 보면, 빈곤층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간 단어에 노출되는 정도의 차이는 아동기 때 약 3천만 단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Hart & Risely, 1995).

제공하는 어휘의 양이나 다양성과 더불어 부모가 사용하는 구문의 종류나 복잡성도 어휘습득과 언어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Anderson et al., 2021; Rowe, 2012). 예컨대, 부모-아동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부모가 아동이 보고 있는 물체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거나, 설명 의문문(wh-questions)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우 아동에

게서 긍정적인 어휘발달이 관찰되었다(Peters & Yu, 2020; Rowe et al., 2016).

특히, 질문(question)의 빈도는 높을수록 촉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설명 의문문을 많이 사용할수록 만 24개월 자녀의 현 어휘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Leech et al., 2013; Rowe et al., 2016), 평정 의문문(yes/no question)을 포함하여 질문을 자주 사용하는 양육자의 자녀에게서도 어휘 크기 증가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Fletcher et al., 2008; Luo et al., 2022). 질문 중에서도 정해진 답변이 없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은 유아가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정교하고 복잡한 구문을 생성하도록 촉진하여 어휘 성장을 돕는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Leech et al., 2013; Luo et al., 2022; Rowe et al., 2016).

반면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지시하는 표현은 아동의 언어발달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었다(Masur et al., 2005). Masur과 동료(2005)는 어머니가 만 10, 13, 17개월 유아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요구할 때 사용하는 지시적인 언어와 행동 특성이 자녀의 표현어휘 크기를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의 반응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대신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의 소통이 어휘습득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정확한 물체를 명확하게 언급하였는지의 여부 등 다른 발화 특성도 유아의 어휘습득에 촉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Peters와 Yu(2020)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아동이 보고 있는 물체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어휘량이 큰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제공하는 언어의 질적 특성

이 어휘의 양이나 다양성과 더불어 유아의 어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촉진적 역할은 양육자의 언어적 입력 자극이 유아의 주의를 학습 대상으로 이끌고 이를 지속시키는 데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Lawson & Ruff, 2004; Pereira et al., 2014; Trueswell et al., 2016; Vlach & Sandhofer, 2014). 즉, 명명 대상에 대해 양육자가 ‘명명’하고 난 뒤 학습자가 주의를 유지할수록 어휘습득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양육자는 아동의 주의를 끌고 유지하기 위해 말과 더불어 가리키거나 물체 보여주기, 조작하기, 시선 교환하기 등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주의(joint attention) 행동은 아동의 어휘습득량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알려졌다(김윤지 등, 2020; 박영신 등, 2009; Baldwin 1991, 1993; Tomasello & Farrar, 1986; Tomasello & Todd, 1983). 따라서 공동주의는 어휘습득에서 중요시되는 사회적·행동적 조건으로 고려되고 연구되어왔는데, 최근 공동주의 혹은 공동참조(joint reference)의 맥락에서 유아의 주의를 지속하는 정도가 아동의 어휘습득에 기반이 되는 더 주요한 기제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Yu et al., 2019).

Peters와 Yu(2020)는 아동이 어휘습득 상황에서 지시 대상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유지하는데 부모 발화의 구조나 의미적 속성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생후 12개월에서 25개월의 영어를 습득하는 유아 35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자유 놀이 상황을 녹화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험실에서 촬영된 평균 7.19분 길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영상에서 부모의 모든 말소리를 전사한 후, 이를 참조

적 속성과 발화 구조에 따른 구문, 그리고 의사소통 의도에 따른 의미의 세 범주에서 각기 분류하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유아의 어휘습득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를 이끌고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때 관찰한 유아의 지속 주의(sustained attention)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 중심이 되는 지시 대상에 시선이 3초 이상 머무르는 주의로 정의하였다. 대상을 3초 미만으로 짧게 쳐다보거나 중간에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 공동참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가 3초 이상 공통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공동일화(joint episode)의 개념(Bakeman & Adamson, 1984)과 유사하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 속 중심 주제가 되는 지시 대상(reference)이 적절한 명사나 대명사로 언급된 지시표현(referential)(예, “here is another car”, “turn it up this way”)이 유의하게 유아의 어휘 습득 개인차를 설명하였다. 지시적 표현 외 나머지 발화는 비지시표현(non-referential)으로 분류되었는데, 어휘습득 개인차의 설명력은 없었다. 주의를 이끌고 지속시키는 데에도 지시표현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의도의 경우, 동작과 활동(action/activity)을 묘사하는 것이 물체 명명하기, 물체특징 묘사하기, 유아의 마음읽기나 주의 끌기 발화와 달리, 측정 시점 유아의 어휘습득 개인차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주의를 지속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발화는 물체의 특징(object feature)을 묘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발화의 구조적 특징은 주의 지속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측정 당시 유아의 어휘 크기 개인차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한국 부모의 입력 자극과 아동의 언어발달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도 있었지만(이혜련, 이귀옥, 2005; 장유경 등, 2004; 홍경훈, 2009), 입력 언어의 질적 특성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지속 주위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휘 습득에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영어 사용 양육자와 자녀를 연구한 Peters와 Yu(2020)의 연구에서도 측정 당시 유아의 어휘만을 포함하였기에 양육자 발화 속성이 이후 어휘습득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ters와 Yu(2020)의 연구 방법을 한국어 사용 양육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한국어와 영어 사용 양육자의 특성을 비교·검증하고자 하였다. 영어 사용 양육자와 학습자에게서 관찰된 지시적 표현의 주요한 효과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주어와 목적어가 자주 생략될 수 있는 대명사 생략 언어(PRO-drop language)로,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는 비율이 영어보다 약 2배 더 많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청희, 2012; Kim, 2000). 따라서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대상을 생략하고 이를 담화나 상황적 맥락에서 복구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양상은 유아에게 제공하는 양육자의 발화에도 자주 관찰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한국어 습득 유아는 영어 습득 유아와 달리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지시 대상을 추론하고 복구해야 하는 추가 과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어휘 습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표준화된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 척도 사용 보고에 따르면 영어 습득 아동에 비해 한국어 습득 아동의 어휘습득량이 2~3개월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배소영, 광금주, 2011; Frank et al., 2021).

따라서 유아 대상 양육자 발화에서 지시 대상이 생략된 표현의 비율을 측정하고 지시표현이 한국어 습득에서도 영어 습득과 같이 동일하게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직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eters와 Yu(2020)의 연구와 유사한 나이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양육자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여기에서 추출한 양육자의 발화를 질적으로 분석한 뒤, 한국어 양육자 발화의 질적 특성이 한국 유아의 주의를 지속시키는 정도와 어휘습득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발화의 질적 속성이 지닌 영향력을 단기적으로 살펴본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참여 시기 어휘와 더불어 이후의 어휘(36개월과 54개월)도 측정하여 장기적인 예측력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머니(주양육자)와 만 15개월에서 20개월 유아 24쌍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김윤지 등(2020)에서 후속 연구 사용에 동의받은 영상자료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 실험 참여 당시와 36개월, 그리고 54개월, 총 3번에 걸쳐 종단적으로 어휘 크기 측정에 모두 참여한 유아와 그 어머니의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은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 순서 및 측정 시기별 수집한 자료를 보여준다. 실험 장면이 낯설어 어머니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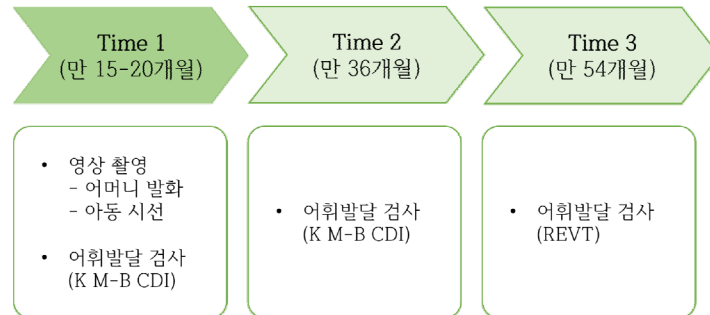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진행 및 자료수집 시기와 내용

려움이 있었던 유아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여아 14명, 남아 10명( $M = 17.67$ 개월,  $SD = 1.64$ 개월)과 그 어머니의 상호작용 영상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어머니 총 24명의 교육 연수는 12년에서 20년( $M = 16.24$ 년,  $SD = 1.94$ 년)이었으며, 가정 연 소득은 4,000~6,000만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2,000~4,000만원, 6,000~8,000만원, 8,000만원에서 1억 원 소득 가구는 각각 4명이었다.

### 측정도구

####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척도 (Korean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dex, K M-B CDI)

첫 번째 어휘습득 개인차의 측정 시기(Time 1, T1)인 15~20개월과 두 번째 측정 시기(Time 2, T2)인 36개월 유아의 어휘는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배소영, 광금주, 2011)로 측정하였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수준과 문법 수준을 측정하였다. 참여 아동의 나이에 따라 영아용(8~17개월) 버전과 유아용(18~36개월) 버전을 각각 사용

하여 표현 낱말의 습득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월령을 고려하여 계산된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

초기에 참여했던 유아의 연령이 54개월 무렵이 되었을 때(Time 3, T3) 수용·표현 어휘력검사(김영태 등, 2009)를 실시하여 표현어휘를 측정하였다. M-B CDI는 36개월까지의 어휘만 측정할 수 있으므로 54개월에는 표준화된 REVT 검사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표현어휘는 제시된 그림을 보고 검사자의 물음에 표적단어를 정확히 답하는지를 통해 측정한다. 연령별로 산출된 백분위 점수로 같은 나이의 또래 집단에서 어휘발달의 정도를 비교하도록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도 백분위 점수를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연구절차 및 측정방식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자료는 참여자의 집에서 유아와 어머니가 자유롭게 놀이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추출하였다. 촬영 당시, 놀이에 활용하도

록 24개의 장난감과 물체가 제공되었고, 어머니에게 이러한 물체를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도록 요청하였다. 제공된 장난감과 물체에는 공, 빗, 모자, 장난감 열쇠 묶음, 태엽 인형 2개(에디, 해리), 풍선 2개, 바퀴 달린 장난감(기차, 비행기, 사다리차, 자동차), 과일 장난감(딸기, 바나나, 수박, 토마토), 동물 인형(곰, 공룡, 오리, 코끼리, 하마, 호랑이), 그리고 글자 없는 그림책 2권이 포함되었다.

영어 습득 아동의 자료(Peters & Yu, 2020)와 비교하기 위하여 책 읽기 활동은 분석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30분 길이의 전체 영상에서 10분 미만 길이의 영상 구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M = 10.01$ 분,  $SD = 0.16$ 분; Peters와 Yu(2020)는 약 7분 길이). 추출구간은 자유 놀이를 시작한 지 5분 후를 기점으로 약 10분 길이의 장면이었으며, 아이가 화면에서 이탈하거나 연구자 개입 등으로 분석에서 제외된 장면들은 제외된 길이만큼의 영상을 이후 구간에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 양육자 발화 코딩(Caregiver Speech coding)

어머니 발화 분석은 ELAN(Version 6.4, 2022)과 Praat(Version 6.1.16, 2020)을 사용하였다. ELAN으로는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영상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모든 발화 내용을 전사하였고, Praat은 전사된 주석들을 음향 파형을 참고하여 각각의 발화로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발화분석연구에서 적용되는 평균 기준인 최소 400ms 간격으로 발화를 분리하였으나(예: Yu & Smith, 2016; Suarez-Rivera et al., 2019), 억양 등의 단서로 문장의 종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간격이 짧더라도 별개의 발화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여기 자동차가 있네. 이거 해볼까?”는 두 개의 발화로

분리하였다.

나누어진 개별 발화는 이후 구조와 의미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위해 Loban(1976)이 제시한 의사소통 단위(Communication units, C-unit)로 다시 구분하였다. 이때 C-unit은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주절)을 말하며, 하나의 주절에는 한 개 이상의 종속절이 포함될 수 있다. 한국어는 대명사 생략 언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도 하나의 C-unit으로 인정된다(권유진, 배소영, 2006). 이외에 자세한 기준은 Peters와 Yu(2020)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SALT(Systematic Analysis of Language Transcripts; Miller & Chapman, 1985)가 제공하는 전사 기준집을 참고하였다. SALT 기준집에는 없지만 감탄사(interjections; 예, “오!”, “아이쿠”)와 꼬리표(tags; 예, “그치?”)도 Peters와 Yu(2020)와 동일하게 독립적인 하나의 C-unit으로 분석에 추가하였다.

이후 양육자 발화의 질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C-unit으로 분류된 발화를 크게 세 가지 범주에 따라 분류하였다(그림 2 참조). 첫 번째 범주인 참조 수준(referential level)은 대화의 중심이 되는 지시 대상을 명사(예, “호랑이가 있네”, “자동차 굴러간다”)나 대명사(예, “이거 봐봐”, “그건 뭐야?”)로 정확히 언급했는지 구분하였다. 지시 대상이 명시된 발화는 지시표현(referential speech), 명시되지 않은 발화는 비지시표현(non-referential speech) 범주로 나누었다.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주요 지시 대상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생략되었으나 복구가 가능한 발화는 생략된 지시표현(omitted-referential speech; 예, “(모자) 씩워 줘”, “(모자가) 떨어졌어?”)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발화의 구조(syntax level)에 따

참조적 수준 (referential level)	의사소통 의도 (communicative intent level)
지시표현 비지시표현 생략된 지시표현	물체 특징 묘사하기 물체 소리 묘사하기 명명하기 동작/활동 묘사하기 긍정하기 부정하기 숫자세기 주의끌기 마음읽기 일상표현 나누기 감탄하기
발화의 구조 (syntax level)	
평서문 명령문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소리 발화 감탄문 꼬리표 조각문	

그림 2. 양육자의 발화에서 산출된 독립변인(세 가지 범주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된 질적 특성들)

라 명령문(Imperatives; 예, “잡아봐”, “빚으로 머리 빗어보자”), 의문문(Questions), 평서문(Declaratives; 예, “토마토가 떨어졌네”, “공 굴러간다”)으로 구분하였고, 의문문 중에서도 상대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인지, ‘네’, ‘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인지에 따라 각각 설명 의문문(Wh-questions; 예, “이건 누구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이나 판정 의문문(yes/no questions; 예, “풍선 불어줄까요?”, “인형이 마음에 들어?”)으로 코딩하였다. 위의 구조에 속하지 않는 발화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특정한 물체나 행동의 모양을 흉내 내는 소리는 소리 발화(vocal play; 예, “부릉부릉”, “떼구르르”)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발화는 감탄문(interjections; 예, “오!”, “좋아!”)으로, 문장의 끝에 붙이는 첨언은 꼬리표(tag; 예, “그렇지?”)로, 그리고 문장에서 본동사가 빠진 발화는 조각문(fragments; 예, “(이건) 호랑이(야)”, “오리도 (토마토 쥐)”)으로 각

각 분류하였다. 한국어에서 조각문은 문법적으로는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완전한 의미를 지닌 문장 표현으로 주로 구어에서 흔히 나타난다(서은아 등, 2004; 안희돈, 2012). “오리는 (물 안 줄거야)?”, “컵 (찾아줘)?” 같은 표현처럼 의미는 온전하나 구조가 생략되어 조각 단위로 이루어진 문장은 모두 조각문으로 분류되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의도(communicative intent level)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지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발화의 경우, 물체특징 묘사하기(object feature; 예, “풍선이 크네”, “딸기가 빨갱다”), 물체소리 묘사하기(object sound; 예, “부릉부릉”, “빵빵”), 명명하기(label; 예, “하마”, “그건 열쇠야”), 그리고 동작/활동 묘사하기(action/activity; 예, “에디가 자동차에서 떨어졌어”, “해리가 걸어간다”)로 분류하였다. “토마토 주세요”, “네가 해 봐”와 같은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동작/활동 묘사하기에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정보를 전달하는 의도 외에 긍정(affirmation; 예, “맞아”, “잘했어”)이나 부정(negation; 예, “아니야”, “안 돼”)의 의도가 있는지, 숫자나 횟수를 세기 위한 목적인지(number; 예, “하나, 둘, 셋”, “컵 두 개”), 유아의 주의를 끌기 위한 발화(attention; 예, “이거 봐봐”, “또 뭐 있어?”)인지, 아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읽는 마음읽기(mental; 예, “마음에 들어?”, “곰돌이 좋아?”)인지, 일상 혹은 의례적 내용(routine/ritual; 예, “안녕”, “고마워”)을 이야기하는지, 혹은 단순한 놀람이나 응답과 같은 감탄하기(exclamation; 예, “와!”, “아이구!”)인지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하나로 구분된 의사소통단위(C-unit)를 관찰자 한 명이 세 개의 범주 유형에 따라 각각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하마는 입이 정말 크다’라는

C-unit은 관심 대상을 명사로 명확히 언급한 ‘지시 표현’이자(참조 수준), 하마의 특징을 설명하는 ‘물체특징 묘사하기’ 표현이고(의사소통 의도), ‘평서문’(발화 구조)으로 분류되었다.

### 유아의 지속 주의(Sustained attention)

부모 발화의 특성에 따라 유아가 주의를 유지하는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자료에서 유아의 시선을 코딩하였다. 어머니 발화를 기준으로 발화가 시작되는 지점(Praat의 음성파일로 확인)부터 언급 대상이 되는 물체를 3초 이상 응시하면 주의를 지속된 것으로 정의하였다(Peters & Yu, 2020). 시선은 유아의 (1) 물체에 대한 명백한 시각적 초점(눈이 보일 때) 혹은 (2) 물체를 향한 머리나 몸의 방향(눈을 볼 수 없을 때)을 통해 확인하였다. 만약 아이가 화면에서 이탈하여 두 단서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장면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길이만큼의 영상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지속 주의 빈도는 두 명의 관찰자가 나누어 코딩하였으며, 분석하는 C-unit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지 모르는 채로 해당 발화에 지속 주의를 나타내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발생 여부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관찰자는 전체 24개의 영상을 모두 코딩하였으며, 두 번째 관찰자는 그중 25%( $n = 6$ )를 이중으로 코딩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다(Cohen의  $Kappa = 0.97$ ).

아이의 시선과 어머니 발화의 시작점을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시선 코딩에도 ELAN(Version 6.4, 202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

먼저, 세 개의 범주 수준별로 양육자 발화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발화의 구조와 의사소통 의도, 유아의 주의 지속 여부, T1에서 T3의 어휘습득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Peters와 Yu(2020)와 동일한 분석기준을 사용했다. 따라서 지시표현이면서 1분당 1번 이상 발화되었던 C-unit만을 분석 데이터에 포함하였다(표 1 참조).

발화의 범주 유형이 측정 시점의 유아의 어휘습득 개인차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이후 측정된 어휘

표 1. 부모 발화의 빈도(C-unit을 기준으로)

변인	평균 (범위), 표준편차		
	지시표현	비지시표현	생략된 지시표현
전체	9.1 (5.0-12.0), 1.8	7.2 (3.8-12.5), 2.5	4.2 (1.5-7.1), 1.3
구조 (Syntax type)			
평서문 (Declarative)	3 (1.1-5.0), 1.0	1.2 (0.2-4.6), 0.9	1.4 (0.4-2.9), 0.6
판정 의문문 (Y/N question)	1.8 (0.4-3.9), 1.0	0.4 (0-1.2), 0.3	1.2 (0.5-3.1), 0.7
조각문 (Fragment)	1.8 (0.4-4.0), 1.0	0.4 (0-1.7), 0.4	0.1 (0-0.4), 0.1
명령문 (Imperative)	1.3 (0.3-2.7), 0.7	0.4 (0-0.9), 0.3	0.9 (0.1-2.0), 0.6
설명 의문문 (Wh-question)	0.9 (0.3-1.9), 0.5	0.4 (0-0.9), 0.3	0.3 (0-1.1), 0.3
감탄문 (Interjection)	0.1 (0-0.7), 0.2	2.1 (0.2-5.7), 1.5	0.3 (0-1), 0.3
소리내기 (Vocal play)	0.1 (0-0.7), 0.2	2.0 (0.5-6.2), 1.4	0 (0-0.4), 0.1
꼬리표 (Tag)	0 (0-0.5), 0.1	0.1 (0-0.4), 0.1	0 (0-0.1), 0



표 1. 부모 발화의 빈도(C-unit을 기준으로)

(계속)

변인	평균 (범위), 표준편차		
	지시표현	비지시표현	생략된 지시표현
의사소통 의도 (Comm. Intent)			
<b>동작/활동 묘사하기 (Action/activity)</b>	2.4 (0.6-4.4), 1.1	1.4 (0.4-2.5), 0.6	1.8 (0.3-3.7), 0.9
<b>명명하기 (Label)</b>	2.3 (0.2-4.5), 1.1	0 (0-0.3), 0.1	0 (0-0.3), 0.1
<b>주의끌기 (Attention)</b>	2 (0.1-4.1), 1.1	1 (0-2.1), 0.5	0.6 (0.2-1.5), 0.4
<b>마음읽기 (Mental)</b>	1.7 (0.4-3.3), 0.8	0.6 (0.1-1.3), 0.4	1.1 (0.3-2.7), 0.7
물체특징 묘사하기 (Object feature)	0.3 (0-1.1), 0.3	0.1 (0-1.0), 0.2	0.3 (0-1.3), 0.4
물체소리 묘사하기 (Object sound)	0.1 (0-0.4), 0.1	1.3 (0.2-4.9), 1.2	0 (0-0.3), 0.1
감탄하기 (Exclamation)	0.1 (0-0.3), 0.1	1.2 (0-2.8), 0.8	0.3 (0-1.0), 0.3
부정하기 (Negation)	0.1 (0-0.3), 0.1	0 (0-0.2), 0.1	0.1 (0-0.6), 0.1
일상표현 나누기 (Routine/ritual)	0.1 (0-0.3), 0.1	0.3 (0-1.2), 0.3	0 (0-0.1), 0
긍정하기 (Affirmation)	0 (0-0.5), 0.1	1 (0.1-3.9), 0.9	0 (0-0.3), 0.1
숫자세기 (Number)	0 (0-0.2), 0.1	0 (0-0.3), 0.1	0 (0-0.1), 0

\*부모의 발화 특성 중 구조와 의사소통 의도 수준을 변인으로 놓고 분석할 때 사용된 데이터는 지시표현(referential speech) 중에서도 1분당 1회 이상 언급된 C-unit으로 제한하였다(볼드체).

(T2와 T3)의 개인차를 설명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발화의 유형이 주의 지속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범주 수준에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먼저 양육자의 전체 발화에서 지시 대상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지시표현의 비율은 44.81%였고, 지시 대상이 없는 비지시표현은 34.59%를 차지하였다. 생략된 지시표현은 한국 부모에게서 관찰된 언어적 특징으로, 해당 범주로 분류된 C-unit은 한국

부모의 전체 발화 중 20.6%를 차지하였다. Peters와 Yu(2020)에서 관찰한 미국 양육자의 발화는 지시표현이 41.35%, 비지시표현이 58.65%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어 사용 양육자의 지시표현 비율이 영어 사용 양육자와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1은 어머니의 전체 C-unit을 지시표현, 비지시표현, 생략된 지시표현, 세 개의 참조적 수준을 기준으로 발화의 구조(syntax level)와 의사소통 의도(communicative intent level)의 각 범주마다의 발화 횟수를 보여준다. 지시표현 중에서 1분당 적어도 1번 이상 발화된 구조적 특징으로는 평서문(3.0회), 조각문(1.8회), 판정 의문문(1.8회), 명령문(1.3회)이 있으며, 의사소통 의도로는 동작 및 활동 묘사하기(2.4회), 물체 명명하기(2.4회), 주의 끌기(2.0회), 마음읽기(1.8회)와 관련 있는 발화가 자주

사용되었다.

### 발화 유형과 어휘습득 간의 관계

유아기 양육자가 제공한 발화 유형에 따라 이후 표현어휘 습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회귀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참조적 수준에서 각 발화의 유형이 어휘습득의 개인차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분당 발화된 지시표현, 비지시표현, 생략된 지시표현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고, 표현 어휘습득량의 개인차(백분위 자료)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모형을 검증하였다. 세 차례에 걸쳐 어휘량 개인차를 측정했기 때문에 (T1, T2, T3) 총 3개의 회귀모형이 검증되었다. 검증 결과, 영어에서 관찰된 결과와 달리 세 개의 회귀모형에서 모두 참조 수준에 따른 발화 유형은 어휘습득의 개인차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  $F = .352$   $p = .917$ , T2:  $F = .216$   $p = .976$ , T3:  $F = .169$   $p = .988$ ). 분당 발화가 아닌 전체 발화 빈도를 예측 요인으로 투입한 모형들에서도 같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발화 구조 유형이 어휘습득 개인차를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영어 사용 양육자 및 자녀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 선행연구(Peters & Yu, 2020)와 동일하게 지시표현이면서 발화 구조에 따른 범주 중에서 1분당 1회 이상 관찰된 범주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기준에 부합한 범주는 평서문, 명령문, 판정 의문문, 그리고 조각문, 네 개의 범주였다. 나머지 범주에서는 1분당 1회 미만의 발화가 관찰되어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네 개의 구조적 범주를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고 어휘습득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참조 수준과 마찬가지로 총 3개의 회귀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발화 구조 유형은 T1의 어휘습득 개인차를 유의도에 근접하게 예측하였는데( $F = 2.327$ ,  $p = .093$ ,  $R^2 = .329$ ), 네 범주 중에서 조각문 발화의 빈도 차이만 고유한 영향을 가져( $\beta = .542$ ,  $t = 2.461$ ,  $p = .024$ ), 전체의 18.8%의 변량을 고유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모형은 T2의 어휘 개인차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F = 1.250$ ,  $p = .324$ ). 발화 구조 유형은 T3의 어휘습득 개인차도 유의도에 근접하게 예측하였는데(그림 3 참조,  $F = 2.502$ ,  $p = .077$ ,  $R^2 = .345$ ), T1과 달리, 네 범주 중에서 평서문 발화의 빈도 차이가 고유한 영향을 가져( $\beta = .444$ ,  $t = 2.230$ ,  $p = .038$ ) 전체의 17.1%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의도 유형이 어휘습득 개인차를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서도 기존 연구(Peters & Yu, 2020)의 분석기준을 따라 지시표현이면서 의사소통 의도에 따른 범주 중에서 1분당 1회 이상의 발화가 나타난 범주만을 포함하였다. 이 기준에 부합한 범주는 동작 및 활동 묘사하기, 물체 명명하기, 주의끌기, 그리고 마음읽기로 네 개의 범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범주는 분당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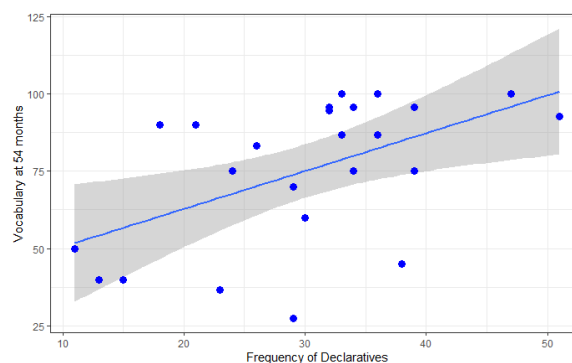


그림 3. 유아 초기의 양육자 발화의 평서문 사용 빈도에 따른 54개월(T3) 표현어휘 개인차

회 미만의 발화가 관찰되어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네 개의 구조적 범주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하고, 어휘습득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모형을 검증하였다. 참조적 수준, 발화 구조 분석과 동일하게 총 3개의 회귀모형을 검증하였다.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모형은 모든 시기의 어휘량 개인차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1:F = .577$   $p = .683$ ,  $T2:F = .337$   $p = .850$ ,  $T3:F = 1.018$   $p = .423$ ).

마지막으로 어휘습득 변화량을 예측하는 발화의 질적 특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어휘를 측정된 시기 간의 변화량을 각각 산출하였다:  $T3-T1$ ,  $T3-T2$ ,  $T2-T1$ . 먼저,  $T1$ 과  $T2$  사이의 변화량을 유의하게 예측한 발화 속성은 조각문( $\beta = -1.677$ ,  $t = -2.882$ ,  $p < .01$ )과 명명하기( $\beta = -1.181$ ,  $t = -1.984$ ,  $p = .059$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각문과 명명하기는 부적인 예측력을 가져 유아기 양육자 발화에 조각문이나 명명하기 많을수록 36개월에서의 어휘습득량의 증가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각문의 발화 빈도 개인차는 초기부터 54개월 사이의 어휘 변화량( $T3-T1$ )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관찰되어(그림 4 참조:  $\beta = -1.928$ ,  $t = -2.998$ ,  $p < .01$ ), 유아기 양육자가 조각문을 자주 사용할수록 어휘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아동기 초기까지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지시표현 중에서도 어휘습득량과 관계를 보인 유형이 하나 관찰되었다. 바로 긍정하기였는데, 긍정 표현이 빈번한 것은  $T1$ 의 어휘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beta = 1.362$ ,  $t = 2.398$ ,  $p = .025$ ),  $T2-T1$ ( $\beta = -1.770$ ,  $t = -2.645$ ,  $p = .015$ )의 변화량은 부적으로 예측하여 단기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어휘습득 증가량에는 도움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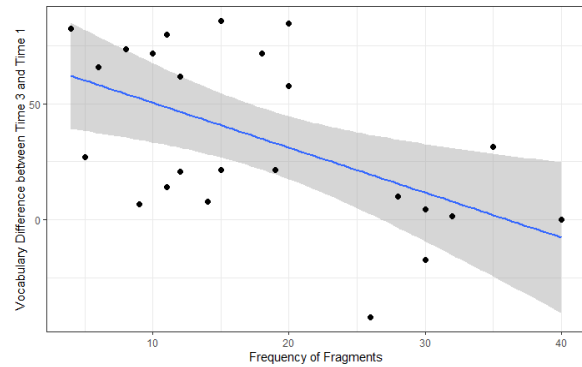


그림 4. 유아 초기의 양육자 발화에서의 조각문 사용 빈도에 따른 어휘습득 변화량의 개인차( $T1$ 에서  $T3$  사이의 변화량)

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생략된 지시표현의 유형 중에서는 어휘습득 지표를 유의하게 예측한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다.

### 양육자 발화 특성과 주의 지속

양육자 발화의 질적 속성이 유아의 주의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 범주 수준에서 범주 유형에 따라 지속 주위가 관찰된 빈도가 달랐는지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모형으로 각각 검증하였다. 유아의 성별은 사전 분석 검토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분석에 투입하지 않았다.

먼저, 참조 수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시표현, 비지시표현, 생략된 지시표현의 요인을 참가자 내 반복요인으로 투입하고, 지속 주의 관찰 빈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조적 수준에서의 발화 유형은 주의 지속에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다( $F(2, 46) = 60.519$ ,  $p < .001$ ,  $\eta^2_p = .725$ ). Bonferroni 교정을 사용한 사후 다중비교 결과, 지시표현은 비지시표현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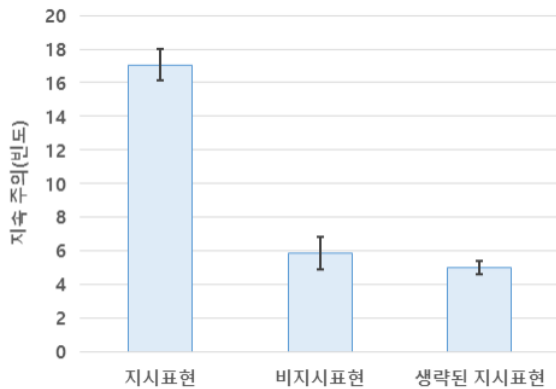


그림 5. 참조 수준에서 표현 유형에 따라 지속 주의(sustained attention)가 관찰된 빈도. 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임.

생략된 지시표현보다 주의를 더 빈번히 유도하고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그림 5 참조).

발화 구조 수준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당 1회 이상의 발화가 있었던 평서문, 명령문, 판정 의문문, 조각문의 네 요인을 참가자 내 반복 요인으로 투입하고, 지속 주의 관찰 빈도를 종속변인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문 유형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하였다( $F(3, 69) = 4.361$ ,  $p = .007$ ,  $\eta^2_p = .159$ ). 네 가지 구문 유형 중에서도 평서문이 주의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판정 의문문이었고, 조각문은 지속 주의 유도 효과가 가장 적었다(그림 6 참조). Bonferroni 다중비교 결과, 평서문은 조각문과 주의 지속에서 유의한 차이( $p = .006$ )를 보였으나 지시문이나 판정 의문문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사소통 의도에 따른 주의 지속 정도도 비교하기 위하여 유의 발화 수가 확보된 네 개의 범주(동작 및 활동, 명명하기, 주의끌기, 마음읽기)를 반복요인으로 하여 지속 주의 관찰 빈도에 대한 반복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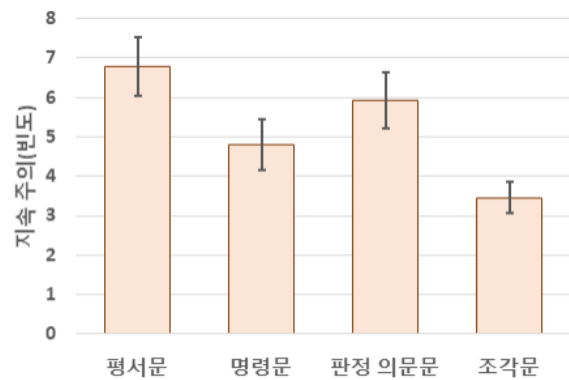


그림 6. 발화 구조 수준에서 구문 유형에 따라 지속 주의가 관찰된 빈도. 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범주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3, 69) = 36.727$ ,  $p < .001$ ,  $\eta^2_p = .615$ ). 특히, 마음읽기를 언급한 발화가 다른 세 유형보다 유의하게 가장 많은 지속 주의를 유발하였다(Bonferroni,  $ps < .001$ ). 동작이나 활동에 대한 설명이 다음으로 지속 주의를 유발하였고, 이는 명명하기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으나( $p = .014$ ) 주의끌기와는 다르지 않았다(그림 7 참조).

마지막으로, 지속 주의에서의 개인차가 어휘습득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회귀모형 검증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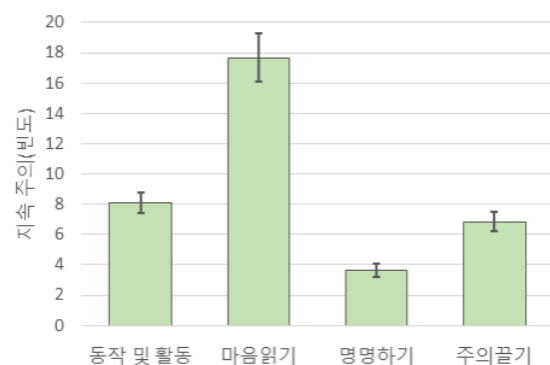


그림 7. 의사소통 의도에 따른 지속 주의의 관찰 빈도. 오차막대는 평균의 표준오차임.

시하였으나 유의하게 관찰된 결과는 없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양육자가 만 15~20개월 유아와 자유 놀이 상황에서 사용한 한국어 입력 언어의 발화를 참조 수준과 발화 구조, 그리고 의사소통 의도의 세 범주 수준에서 질적으로 분류하고, 질적 특성에 따라 유아의 주의를 유도하고 지속시키는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가 어휘 습득의 개인차를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예측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흥미롭게도 영어에서 관찰된 결과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 한국어에서 관찰되었다. 영어에서 지시표현과 동작 및 활동 묘사하기가 유아기 어휘 습득 개인차를 가장 잘 설명하였던 것과 달리(Peters & Yu, 2020), 한국어에서는 지시 대상의 명시적 언급 여부는 어휘 습득의 개인차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의사소통 의도 측면에서도 유의하게 어휘 습득을 설명하는 요인은 없었다. 반대로 발화의 구조적 특성이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관찰되었는데, 영어와 달리 평서문의 발화 빈도가 유아기 어휘 습득의 개인차만이 아니라 54개월(T3) 무렵의 어휘 습득 개인차도 유의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었다. 발화의 구조적 특성은 영어 사용 양육자의 발화에서는 유아의 어휘와 주의 지속 면에서 효과가 전혀 관찰되지 않은 측면이었기에(Peters & Yu, 2020) 두 언어에서 관찰된 차이는 매우 흥미롭다.

한국어 지시표현에서 평서문의 사용은 지속 주의도 비교적 빈번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습득 아동의 어휘 습득에서 평서문의 사용은 주의를 유발하고 지속시켜 장기적으로 어휘 습득을 촉

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반대로 조각문의 사용 빈도는 어휘 습득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었다. 유아기 놀이 상황에서 조각문을 더 자주 사용한 양육자의 자녀일수록 T1에서 T3까지의 어휘 습득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각문은 다른 구문에 비해 유아의 지속 주의를 가장 적게 유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학습자에게 단어만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완전한 문장을 제시해주는 것이,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 구조로 입력 자극을 제공할 때 어휘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는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는 대상이 발화에서 자주 생략된다. 따라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유아는 빠진 내용을 문맥으로 추측하고 회복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남아있는 나머지 문장 성분을 활용하는 능력이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조각문으로 제시할 때보다 완전한 문장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 형태의 입력 자극이 어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단서를 더 많이 제공했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사 정보 활용 가설(Syntactic bootstrapping hypothesis, Landau & Gleitman, 1985)과 연결되어 보인다. 영유아는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시된 입력 언어의 통사 정보도 적극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출하기 때문이다(예, Babineau et al., 2020; Yuan & Fisher, 2009)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는 언어로 지시 대상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발화가 양육자의 입력 언어에서도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지시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영어의 결과를 참고하면, 지시 대상이 생략된 표현의 사용 비율이 높을 경우, 한

국어 습득 아동의 어휘습득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어 사용 양육자의 지시표현 비율과 영어 사용 양육자의 지시표현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비록 생략된 지시표현의 비율이 20%가량 관찰되었으나 명시적 지시표현의 비율은 영어에서 관찰된 지시표현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여 실제로 한국어 사용 양육자는 자녀에게 제공하는 발화에서 지시 대상이 생략된 표현보다는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발화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영어에 비해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두 배 정도 높다는 보고(박정희, 2012; Kim, 2000)와 비교해 보더라도 꽤 놀라운 결과이었다.

이는 양육자가 다른 성인과는 달리 어린 초보 학습자인 자녀에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습에 좀 더 쉬운 언어 입력 자극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생략된 지시 대상을 맥락이나 담화를 통해 추론하여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어린 학습자를 배려하여 생략되지 않은 지시표현을 좀 더 자주 발화하고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양육자가 다른 성인과 상호작용할 때의 발화와 어린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의 발화를 직접 비교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시표현의 비율이 영어에 비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관찰된 결과와 달리 지시표현이 어휘습득 개인차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지속 주의를 유도하는 면에서도 한국어 양육자의 지시표현은 영어 양육자의 지시표현과 유사하게 더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시표현 중에서도 평서문 사용의 긍정적

예측력과 조각문의 부정적 예측력은 관찰되었기에 지시표현이 역할은 하되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엿보였다. 다만, 여전히, 영어 자료(35쌍)에 비해 다소 적은 표본(24쌍)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것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한, 영어 자료가 12~25개월의 넓은 연령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더 넓은 연령범위를 대상으로 큰 표본 수를 확보하여 지시표현의 역할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만 관찰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마음읽기 발화가 지닌 주의 지속 효과였다. 영어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관찰된 마음읽기 발화의 지속 주의 유발 효과는 매우 컸다. 비록 어휘습득에서 마음읽기 발화의 직접적 역할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효과는 아동기 후기에 주로 습득되는 마음 관련 추상 명사의 습득에서 촉진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촉진이 마음이론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Meins et al., 2001). 향후 이러한 관계성을 검토하는 체계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 대상이 있는 구상 명사의 습득뿐만 아니라 추상 명사의 습득에 있어 양육자의 발화가 가진 역할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비언어적 요소가 아동의 주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아동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보여주기, 쳐다보기 등 부모의 눈짓이나 몸짓에 따라 시선을 전환하고 유지할 수 있다(예: Mundy et al., 2007). 또, 발화할 때 아이를 만지거나 물건을 보여주는 행동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주의를 끌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 Suarez-Rivera et al., 2019). 따라서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들이 양육자 발화와 더불어 아동의 지속주의에 영향을 끼치고 상호작용하는지는 향후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한국어 사용 양육자의 발화 특성 중 구조적 특징은 단기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 주의 유도와 어휘습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 대상이 포함된 평서문은 유아기만이 아니라 54개월(T3) 무렵의 어휘습득 개인차를 긍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완전하지 않은 조각문의 빈번한 사용은 유아기와 더불어 54개월에 이르는 어휘습득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함께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언어발달 촉진에서 도움이 되는 구문과 저해되는 구문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 권유진, 배소영 (2006). 이야기 만들기(story generation) 과제를 통한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이야기구성 능력. **언어치료연구**, 15(3), 115-126.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윤지, 최영은, 정지은 (2020). 준구조화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공동주의 시도하기: 개인차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45-164.  
<https://doi.org/10.35574/KJDP.2020.6.33.2.145>
- 박영신, 박난희, 김효정 (2009). 영아들의 함께 주의하기와 어휘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85-103.
- 박정희 (2012). 한국어와 영어의 생략 현상에 대한 통계적 접근 -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66, 171-192.
- 배소영, 곽금주 (2011). **한국판 맥아더-베이트츠의 사소통발달 평가(K M-B CDI)**. 서울: 마인드프레스.
- 서은아, 남길임, 서상규 (2004).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조각문 유형 연구. **한글학회**, 264, 123-151.  
<https://doi.org/10.22557/HG.2004.06.264.123>
- 안희돈 (2012). **조각문연구 -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사.
- 이혜련, 이귀옥 (2005). 아동의 초기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간의 관계: 동사와 명사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05-216.
- 장유경, 성지현 (2011).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 습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37-154.
- 장유경, 임현정, 곽금주 (2004). 언어적 입력의 품사가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05-120.

- 정지은, 최영은 (2019). 초기 언어 발달에서 환경적 요인들의 역할-음소지각, 어휘 습득, 구문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193-213.  
<https://doi.org/10.35574/KJDP.2019.06.32.2.193>
- 홍경훈 (2009). 아동의 초기 표현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상호작용 요인 분석. **언어치료연구**, 18(3), 35-49.  
<https://doi.org/10.15724/jslhd.2009.18.3.003>
- Agostin, T. M., & Bain, S. K. (1997). Predicting early school success with developmental and social skills screeners. *Psychology in the Schools*, 34(3), 219-228.  
[https://doi.org/10.1002/\(SICI\)1520-6807\(199707\)34:3<219::AID-PITS4>3.0.CO;2-J](https://doi.org/10.1002/(SICI)1520-6807(199707)34:3<219::AID-PITS4>3.0.CO;2-J)
- Anderson, N. J., Graham, S. A., Prime, H., Jenkins, J. M., & Madigan, S. (2021). Linking quality and quantity of parental linguistic input to child language skills: A meta analysis. *Child Development*, 92(2), 484-501. <https://doi.org/10.1111/cdev.13508>
- Babineau, M., Shi, R., & Christophe, A. (2020). 14 month olds exploit verbs' syntactic contexts to build expectations about novel words. *Infancy*, 25(5), 719-733. <https://doi.org/10.1111/infa.12354>
- Bakeman, R., & Adamson, L. B. (1984). Coordinating attention to people and objects in mother-infant and pe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1278-1289. <https://doi.org/10.2307/1129997>
- Baldwin, D. A. (1991). Infants' contribution to the achievement of joint reference. *Child Development*, 62(5), 875-890.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1.tb01577.x>
- Baldwin, D. A. (1993). Infants' ability to consult the speaker for clues to word reference. *Journal of Child Language*, 20(2), 395-418.  
<https://doi.org/10.1017/S0305000900008345>
- Boersma P. & Weenink, D. (1992-2022). 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Computer program]. Version 6.1.16, <https://www.praat.org>.
- Clegg, J., Law, J., Rush, R., Peters, T. J., & Roulstone, S. (2015). The contribution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functioning at 6 year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Children in Focus sample from the ALSPAC birth coh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1), 67-75.  
<https://doi.org/10.1111/jcpp.12281>
- Dapretto, M., & Bjork, E. L. (2000). The development of word retrieval abilities in the second year and its relation to early vocabulary growth. *Child Development*, 71(3), 635-648.  
<https://doi.org/10.1111/1467-8624.00172>
- Duff, F. J., Reen, G., Plunkett, K., & Nation, K. (2015). Do infant vocabulary skills predict school age language and literacy outcom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8), 848-856.



- <https://doi.org/10.1111/jcpp.12378>  
ELAN (Version 6.4) [Computer software].  
(2022). Nijmegen: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https://archive.mpi.nl/tla/elan>
- Fletcher, K. L., Cross, J. R., Tanney, A. L.,  
Schneider, M., & Finch, W. H. (2008).  
Predicting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at risk: The effects of quality  
and frequency of caregiver read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9*(1), 89-111.  
<https://doi.org/10.1080/10409280701839106>
- Frank, M. C., Braginsky, M., Yurovsky, D.,  
& Marchman, V. A. (2021). *Vocabulary  
Composition: Syntactic Categories. In  
Variability and Consistency in Early  
Language Learning: The Wordbank  
Project*. MIT Press.  
<https://doi.org/10.7551/mitpress/11577.001.0001>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Paul H Brookes  
Publishing.
- Hoff, E. (2003). The specificity of  
environmental influence: Socioeconomic  
status affects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via maternal speech. *Child  
Development, 74*(5), 1368-1378.  
<https://doi.org/10.1111/1467-8624.00612>
- Huttenlocher, J., Waterfall, H., Vasilyeva,  
M., Vevea, J., & Hedges, L. V. (2010).  
Sources of variability in children's  
language growth. *Cognitive Psychology,  
61*(4), 343-365.  
<https://doi.org/10.1016/j.cogpsych.2010.08.002>
- Kim, Y. J. (2000). Subject/object drop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9*(4), 325-351.  
<https://doi.org/10.1023/A:1008304903779>
- Landau, B., & Gleitman, L. R. (1985).  
*Language and experience: Evidence from  
the blind child*. Harvard University Press.
- Law, F., & Edwards, J. R. (2015). Effects  
of vocabulary size on online lexical  
processing by preschoolers. *Language  
Learning and Development, 11*(4), 331-355.  
<https://doi.org/10.1080/15475441.2014.961066>
- Lawson, K. R., & Ruff, H. A. (2004). Early  
focused attention predicts outcome for  
children born prematurely.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25*(6), 399-406.  
<https://doi.org/10.1080/01650250344000361>
- Lee, J. (2011). Size matters: Early vocabulary  
as a predictor of language and literacy  
competence. *Applied Psycholinguistics, 32*  
(1), 69-92.  
<https://doi.org/10.1017/S0142716410000299>
- Leech, K. A., Salo, V. C., Rowe, M. L., &  
Cabrera, N. J. (2013). Father input  
and child vocabulary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Wh questions and

- clarification requests.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34(4), 249-259.  
<https://doi.org/10.1055/s-0033-1353445>
- Loban, W. (1976). *Language development: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Urbana, IL: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https://eric.ed.gov/?id=ED128818>
- Luo, R., Masek, L. R., Alper, R. M., & Hirsh-Pasek, K. (2022). Maternal question use and child language outcomes: The moderating role of children's vocabulary skills and socioeconomic statu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9, 109-120.  
<https://doi.org/10.1016/j.ecresq.2021.11.007>
- Masur, E. F., Flynn, V., & Eichorst, D. L. (2005). Maternal responsive and directive behaviours and utterances as predictors of children's lexic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32(1), 63-91.  
<https://doi.org/10.1017/S0305000904006634>
- Meins, E., Fernyhough, C., Fradley, E., & Tuckey, M. (2001). Rethinking maternal sensitivity: Mothers' comments on infants' mental processes predict security of attachment at 12 month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5), 637-648.  
<https://doi.org/10.1111/1469-7610.00759>
- Mundy, P., Block, J., Delgado, C., Pomares, Y., Van Hecke, A. V., & Parlade, M. V. (2007).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atten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78(3), 938-954.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7.01042.x>
- Pereira, A. F., Smith, L. B., & Yu, C. (2014). A bottom-up view of toddler word learning.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21(1), 178-185.  
<https://doi.org/10.3758/s13423-013-0466->
- Peters, R., & Yu, C. (2020, July 29-August 1). Examining a developmental pathway of early word learning: From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Parent Speech, to Sustained Attention, to Vocabulary Size[Poster presentation]. *Cognitive Science Society 42nd Annual Virtual Meeting*.  
<https://www.cognitivesciencesociety.org/cogsci20/papers/0317/0317.pdf>
- Rowe, M. L. (2012).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 directed speech in vocabular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3(5), 1762-1774.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2.01805.x>
- Rowe, M. L., & Goldin-Meadow, S. (2009). Differences in early gesture explain SES disparities in child vocabulary size at school entry. *Science*, 323(5916), 951-953.  
<https://doi.org/10.1126/science.1167025>
- Rowe, M. L., Leech, K. A., & Cabrera, N. (2016). Going beyond input quantity: Wh questions matter for toddlers'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ognitive*

- Science*, 41, 162-179.  
<https://doi.org/10.1111/cogs.12349>
- Schwab, J. F., & Lew Williams, C. (2016). Language learning,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irected speech.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7(4), 264-275.  
<https://doi.org/10.1002/wcs.1393>
- Suarez-Rivera, C., Smith, L. B., & Yu, C. (2019). Multimodal parent behaviors within joint attention support sustained attention in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5(1), 96.  
<https://doi.org/10.1037/dev0000628>
- Tomasello, M., & Farrar, M. J. (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1454-1463.  
<https://doi.org/10.2307/1130423>
- Tomasello, M., & Todd, J. (1983). Joint attention and lexical acquisition style. *First Language*, 4(12), 197-211.  
<https://doi.org/10.1177/01427237830040120>
- Tomblin, J. B., Zhang, X., Buckwalter, P., & Catts, H. (2000). The association of reading disability, behavioral disorders, and language impairment among second grad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4), 473-482.  
<https://doi.org/10.1111/1469-7610.00632>
- Trueswell, J. C., Lin, Y., Armstrong III, B., Cartmill, E. A., Goldin-Meadow, S., & Gleitman, L. R. (2016). Perceiving referential intent: Dynamics of reference in natural parent-child interactions. *Cognition*, 148, 117-135.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15.11.002>
- Vlach, H. A., & Sandhofer, C. M. (2014). Retrieval dynamics and retention in cross situational statistical word learning. *Cognitive Science*, 38(4), 757-774.  
<https://doi.org/10.1111/cogs.12092>
- Weisleder, A., & Fernald, A. (2013). Talking to children matters: Early language experience strengthens processing and builds vocabulary. *Psychological Science*, 24(11), 2143-2152.  
<https://doi.org/10.1177/0956797613488145>
- Westrupp, E. M., Reilly, S., McKean, C., Law, J., Mensah, F., & Nicholson, J. M. (2020). Vocabulary development and trajectorie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fficulties via academic ability and peer problems. *Child Development*, 91(2), e365-e382.  
<https://doi.org/10.1111/cdev.13219>
- Yu, C., & Smith, L. B. (2016). The social origins of sustained attention in one-year-old human infants. *Current Biology*, 26(9), 1235-1240.  
<https://doi.org/10.1016/j.cub.2016.03.026>
- Yu, C., Suanda, S. H., & Smith, L. B. (2019). Infant sustained attention but not joint attention to objects at 9 months predicts vocabulary at 12 and 15 months. *Developmental Science*, 22(1), e12735.  
<https://doi.org/10.1111/desc.12735>

Yuan, S., & Fisher, C. (2009). "Really? She blicked the baby?" Two-year-olds learn combinatorial facts about verbs by listening. *Psychological science*, 20(5), 619-626.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9.0>

234

## Exploring the effect of Korean caregiver speech quality on sustaining the child's attention and vocabulary acquisition

Yoonsung Kim<sup>1</sup>

Youngon Choi<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sup>2</sup>

The Input language provided to young learners play important roles in their language acquisition. Caregiver speech draws and sustains learners' attention, and this sustained attention may facilitate word acquisition. The role of caregivers' speech quality in sustaining learners' attention and facilitating word acquisition has not been investigated in Korean. Twenty-four Korean mothers' speeches provided for their 15-20-month-olds were analyzed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speech quality and sustained attention relate to concurrent and later vocabulary acquisition. Unlike English findings, syntax predicted later vocabulary acquisition, instead of the referential nature or communicative intent. Specifically, declarative use elicited sustained attention and positively predicted vocabulary growth, whereas sentence fragments were less likely to sustain attention and negatively predicted word growth. Interestingly, however, a similar proportion of overall referential speech was observed to that of English,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Korean caregivers may be less likely to omit referent mentions in infant-directed speech.

*Keywords* : caregiver speech, input quality, sustained attention, vocabulary acquisition